

# 標幽賦에 대한 研究

朴赫圭 · 孟雄在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Abstract

*BiaoYouFu(標幽賦) is a classic of accupuncuret&moxibustion, written by a famous accupuncurist& moxibustionist DouHanQing, and it is published in DouHanQing's ZhenQingZhiNan,*

*BiaoYouFu is an accupuncuret&moxibustion GeFu(歌賦-a type of song) that simply expressed the profound and abstract part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acupuncure&moxibustion in GeFu forms, and allowed people studying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acupuncure&moxibustion readily, and also help doctors to memorize easily.*

*The author wrote annotations for abstruse parts and pronunciations for the original text to help in reading the original text with ease.*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it was translated according to our country's unique rhythm of folk song, the 3·4, 4·4beat, to make it easily readable, so that it could be studied repeatedly and understood deeply.*

## I . 緒 論

歌賦란 歌와 賦를 함께 일컫는 말로써 歌賦는 韻文으로 이루어진 詩歌를 총칭한다. 歌는 歌訣 또는 歌括이라고도 하며 賦는 구절이 韻文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sup>1)</sup>

歌賦는 의학의 기초이론에서부터 本草, 湯液, 鍼灸, 診斷 등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었던 형식이었으며 이처럼 歌賦의 필요성이 높아졌던 이유는 歌賦의 형식이 함축적이며 쉽게

1) 朴奘南, 孟雄在: 蘭江賦에 대한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회지, 1992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의학의 교육이나 실제에 있어서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醫學은 의학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사항이 많은 학문으로 학습과 활용에 편리하게 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歌賦의 형식이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 중국에서 발행되는 책에서도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歌賦가 실려있어 지금도 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歌賦 또한 漢字로 쓰여져 있으며 그 내용도 함축적이어서 쉽게 읽고 외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쉽게 활용되도록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鍼灸歌賦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詩歌형식인 歌賦에 대한 번역이 산문형식으로 번역되어 歌賦 원래의 의도와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읽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한 歌賦를 산문으로 번역하면 그것을 다시 쉽게 활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歌賦를 번역하려면 우리말의 전통적 운율인 4·4조를 기본으로 한 해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鍼灸歌賦를 4·4조에 맞춰 번역한 시도로는 金<sup>3)</sup>의 <百症賦> 논문이 좋은 선례라고 본다.

함축적인 歌賦의 내용을 다시 함축적인 4·4조의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충분한 번역이 되지 못하고 한글 맞춤법에 다소 벗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내용을 반복해서 읽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하는 과정상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보며, 부족한 내용이나 번역에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사항들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덧붙여 자꾸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의학에 있어서 歌賦는 李梴의 《醫學入門》, 李時珍의 《濱湖脈學》, 汪昂의 《湯頭歌訣》, 清代의 《醫宗金鑑》, 眞念祖의 《醫學三字經》, 《萬病回春》의 <藥性歌>, 崔嘉言의 《脈訣》 등 많은 의학부분에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鍼灸歌賦는 침구이론 및 임상 경험을 총결한 것으로 그 내용은 經絡, 腧穴, 針灸手技法, 治療經驗, 辨證에 따른 選穴, 古代傳統選穴法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鍼灸大典》, 《鍼灸聚英》, 《鍼灸大成》 등의 서적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대략 歌訣이 90餘首, 賦가 10餘首 정도이다.<sup>4)</sup>

<標幽賦>는 金元대의 有名한 臨床家인 竇漢卿이 撰寫한 것으로 그가 지은 《鍼灸指南》 首卷에 있으며 單行本으로도 있다고 한다. 《普濟方》, 《鍼灸大全》, 《楊敬齋鍼灸全書》, 《鍼灸聚英》, 《類經附翼》 등의 明代의 醫學書中에도 기재되어 있다.

竇漢卿 자신은 일찌기 이 賦를 注解하였으며 그의 제자 王鏡潭은 《重注標幽賦》를 지었다.

2) 上揭書

3) 金信均 : 百症賦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9년

4) 王森 外2: 鍼灸歌賦集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明 洪武初년에 醫學提學인 祝伯靜도 일찌기 本賦의 注解를 달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와 같은 注釋本은 모두 없어지고 현존하는 本賦의 注解는 《鍼灸大成》, 《楊敬齋鍼灸全書》 및 《鍼灸大成》 등의 책속에 남아 있다. 《鍼灸大成》의 注解는 《鍼灸大全》의 注解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楊氏의 注解는 《鍼灸大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賦의 작자인 竇默의 字는 子聲으로 初名은 傑이며 廣平 肥鄉人으로 1196년(南宋 慶元 2年 丙辰)에 태어나 1280년(元 至元 17年 庚辰)에卒하였다. 竇氏는 어려서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장성해서 金元의 兵亂을 피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가서 渡河하여 名醫 李浩로부터 銅人針法을 배웠고 고향에 돌아온 후 鍼灸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는데 著書로는 《鍼經指南》, 《流注指要賦》(또는 《通玄指要賦》), 《六十六穴流注秘訣》 등이 있다. 일찌기 元의 昭文館 大學士와 太師 등의 벼슬을 하였고 死後에 魏國公으로 봉해졌고 諡號는 文正이다.<sup>5)</sup>

本 賦는 鍼灸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심오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밝혀서 鍼灸學의 幽微한 理致를 밝혔으므로 “標幽賦”라 하였다.

<標幽賦>에 대한 연구로는 張<sup>6)</sup>의 연구가 있으며 原文 연구 및 注釋의 비교연구, 침구학술적인 내용의 연구는 되어 있으나, 歌賦를 번역함에 있어 詩歌형태로의 번역이 아닌 산문으로의 번역이 되어있어 자주 읽고 쉽게 읽을 수 있기에는 불편하기에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시가 운율에 맞춘 번역을 위주로 연구해보고자 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原文研究 進行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標幽賦>의 저본은 李泰浩가 懸吐한 《鍼灸大成》 중에 있는 것을 原本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進行방법은 원문, 해석, 교감, 주석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 1) 原文 : 원문에 토를 달았다.
- 2) 解釋 :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락인 민요나 시조 또는 가사에서 나타나는 3·4조, 4·4조의 노래로 하여 읽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가능한한 운율에 맞추어 해석하였다. 여기서 본 <標幽賦>는 歌의 형식이 아닌 賦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문의 장단

5) 王森 外2: 鍼灸歌賦集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6) 張竣赫, 金甲成: 標幽賦에 관한 文獻의 考察, 서울, 대한침구학회지 제13권, 1996

이 일정하지 않으나, 4·4조에 맞추어 대귀가 되도록 짧은 문장은 늘여서, 긴 문장은 줄여서 해석하였다.

3) 校勘 : 원문에 대한 교감은 국내외 《鍼灸大成》의 여러 판본과 관련서적을 참고하였다.

4) 注釋 : 함축적인 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 단어, 혈의 위치, 병리기전 및 침구치료 기전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곳은 주석을 달았다.

## 2. 原文研究

拯<sup>1)</sup>救<sup>1)</sup>구<sup>1)</sup>之<sup>1)</sup>法<sup>1)</sup>법은

妙<sup>1)</sup>묘<sup>1)</sup>用<sup>1)</sup>용<sup>1)</sup>者<sup>1)</sup>자<sup>1)</sup>鍼<sup>1)</sup>침이니

<解釋> 위험한 질병에서 생명을 건지는데  
신묘한 방법으로 침구가 사용되니

1) 拯(증) : 건지다, 돕다. 구조, 구원함.

察<sup>2)</sup>관<sup>2)</sup>歲<sup>2)</sup>세<sup>2)</sup>時<sup>2)</sup>시<sup>2)</sup>於<sup>2)</sup>어<sup>2)</sup>天<sup>2)</sup>천<sup>2)</sup>道<sup>2)</sup>도<sup>2)</sup>하고

定<sup>4)</sup>정<sup>4)</sup>形<sup>4)</sup>형<sup>4)</sup>氣<sup>4)</sup>기<sup>4)</sup>於<sup>4)</sup>어<sup>4)</sup>予<sup>4)</sup>여<sup>4)</sup>心<sup>4)</sup>심<sup>4)</sup>하야

<解釋> 천지자연 춘하추동 자연의 이치따라  
정신신체 정기사기 마음다해 살펴보아

2) 歲時 : 一年四時를 말한다.

3) 天道: 天은 自然界를, 道는 法則을 말하므로 天道는 곧 自然界의 事物變化의 法則을 말한다.

4) 形氣: 형상과 기운, 신체와 정신

春<sup>3)</sup>춘<sup>3)</sup>夏<sup>3)</sup>하<sup>3)</sup>瘦<sup>3)</sup>수<sup>3)</sup>而<sup>3)</sup>이<sup>3)</sup>刺<sup>3)</sup>자<sup>3)</sup>淺<sup>3)</sup>천<sup>3)</sup>하고

秋<sup>3)</sup>추<sup>3)</sup>冬<sup>3)</sup>동<sup>3)</sup>肥<sup>3)</sup>비<sup>3)</sup>而<sup>3)</sup>이<sup>3)</sup>刺<sup>3)</sup>자<sup>3)</sup>深<sup>3)</sup>심<sup>3)</sup>이니라

<解釋> 봄여름과 마른사람 침놓을땐 얇게하고  
가을겨울 살진사람 침놓을땐 깊이한다

不<sup>4)</sup>불<sup>4)</sup>窮<sup>4)</sup>궁<sup>4)</sup>經<sup>4)</sup>경<sup>4)</sup>絡<sup>4)</sup>락<sup>4)</sup>陰<sup>4)</sup>음<sup>4)</sup>陽<sup>4)</sup>양<sup>4)</sup>이면 多<sup>4)</sup>다<sup>4)</sup>逢<sup>4)</sup>봉<sup>4)</sup>刺<sup>4)</sup>자<sup>4)</sup>禁<sup>4)</sup>금<sup>4)</sup>하니

既<sup>4)</sup>기<sup>4)</sup>論<sup>4)</sup>론<sup>4)</sup>臟<sup>4)</sup>장<sup>4)</sup>腑<sup>4)</sup>부<sup>4)</sup>虛<sup>4)</sup>허<sup>4)</sup>實<sup>4)</sup>실<sup>4)</sup>커든 須<sup>4)</sup>수<sup>4)</sup>向<sup>4)</sup>향<sup>4)</sup>經<sup>4)</sup>경<sup>4)</sup>尋<sup>4)</sup>심<sup>4)</sup>하라

<解釋> 경락음양 모른다면 침못놓을 일 많으니

장부허실 알았거든 경락이치 연구하라

原<sub>원</sub>夫<sub>부</sub>

起<sub>기</sub>自<sub>자</sub>中<sub>중</sub>焦<sub>초</sub>하야 水<sub>수</sub>初<sub>초</sub>下<sub>하</sub>漏<sub>루</sub><sup>5)</sup>에

太<sub>태</sub>陰<sub>음</sub>爲<sub>爲</sub>위始<sub>시</sub>하야 至<sub>지</sub>厥<sub>궐</sub>陰<sub>음</sub>而<sub>而</sub>이方<sub>방</sub>終<sub>종</sub>하고

穴<sub>혈</sub>出<sub>출</sub>雲<sub>운</sub>門<sub>문</sub>하야 抵<sub>저</sub>期<sub>기</sub>門<sub>문</sub>而<sub>而</sub>이最<sub>최</sub>後<sub>후</sub>니라

<해석> 경락시작 중초인데 인시부터 돌아가니  
태음운문 시작하여 제일나중 궐음기문

5) 水初下漏: 漏는 時間을 재는 방법으로 옛날에는 물병에서 물 떨어지는 것으로 時間을 測定하였다. 여기에서 물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人體의 氣血이 흐르기 시작하고 또 氣血은 시간에 따라 經絡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正<sub>정</sub>經<sub>경</sub>十<sub>십</sub>二<sub>이</sub>로대 別<sub>별</sub>絡<sub>락</sub>은 走<sub>주</sub>三<sub>삼</sub>百<sub>백</sub>餘<sub>여</sub>支<sub>지</sub>하니

正<sub>정</sub>側<sub>측</sub>仰<sub>양</sub>伏<sub>복</sub>에 氣<sub>기</sub>血<sub>혈</sub>이 有<sub>유</sub>六<sub>육</sub>百<sub>백</sub>餘<sub>여</sub>候<sub>후</sub><sup>6)</sup>니라

<解釋> 정경은 열둘이요 별락은 삼백여개  
우리몸 앞뒤옆에 기혈이 육백여곳

6) 氣血有六百餘候: 앞절의 '別絡走三百餘支'와 관련되는데, 즉 三百餘支에 (營)血과 (衛)氣가 각각 운행되어 六百餘候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手<sub>수</sub>足<sub>족</sub>三<sub>삼</sub>陽<sub>양</sub>은 手<sub>수</sub>走<sub>주</sub>頭<sub>두</sub>而<sub>而</sub>이頭<sub>두</sub>走<sub>주</sub>足<sub>족</sub>하고

手<sub>수</sub>足<sub>족</sub>三<sub>삼</sub>陰<sub>음</sub>은 足<sub>족</sub>走<sub>주</sub>腹<sub>복</sub>而<sub>而</sub>이胸<sub>흉</sub>走<sub>주</sub>手<sub>수</sub>하니

<解釋> 수양경은 손에서 머리로 올라가고  
족양경은 머리에서 발로 내려가며  
족음경은 발에서 배로 올라가고  
수음경은 가슴에서 손으로 내려간다

要<sub>요</sub>識<sub>식</sub>迎<sub>영</sub>隨<sub>수</sub>인댄 須<sub>수</sub>明<sub>명</sub>逆<sub>역</sub>順<sub>순</sub>하고

況<sub>황</sub>夫<sub>부</sub>陰<sub>음</sub>陽<sub>양</sub>은 氣<sub>기</sub>血<sub>혈</sub>多<sub>다</sub>少<sub>소</sub>爲<sub>爲</sub>위最<sub>최</sub>라

<解釋> 영수보사 알려거든 경락방향 알아두고  
십이경락 음양경의 기혈다소 중요하다

厥<sub>궐</sub>陰<sub>음</sub>太<sub>태</sub>陽<sub>양</sub>은 少<sub>소</sub>氣<sub>기</sub>多<sub>다</sub>血<sub>혈</sub>하고

太<sub>태</sub>陰<sub>음</sub>少<sub>소</sub>陰<sub>음</sub>은 少<sub>소</sub>血<sub>혈</sub>多<sub>다</sub>氣<sub>기</sub>하며

<解釋> 췌음경과 태양경은 소기하고 다혈하며  
태음경과 소음경은 소혈하고 다기하며

而<sup>이</sup>又<sup>우</sup>

氣<sup>기</sup>多<sup>다</sup>血<sup>혈</sup>少<sup>소</sup>者<sup>자</sup>는 少<sup>소</sup>陽<sup>양</sup>之<sup>之</sup>分<sup>분</sup>位<sup>위</sup>이요

氣<sup>기</sup>盛<sup>성</sup>血<sup>혈</sup>多<sup>다</sup>者<sup>자</sup>는 陽<sup>양</sup>明<sup>명</sup>之<sup>之</sup>位<sup>위</sup>위<sup>1</sup>니

<解釋> 다기하고 혈소한것 소양경이 또더있고  
기성하고 혈다한것 양명경락 뿐이로다

[校堪] 1> 厥陰太陽……陽明之位: <校釋>에는 '少血多氣'가 '少血多深'으로 잘못되어 있고 <類經圖翼>에는 '氣盛血多'가 '氣血俱多'로 되어있는 등 氣血多少는 여러 책에 걸쳐 相異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대략 <素問·血氣形志篇>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로 <針灸大成> 卷五에 있는 '十二經氣血多少歌'를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多氣多血經須記니 大腸手經足經胃요  
少血多氣有六經하니 三焦膽腎心脾肺라  
多血少氣心包絡이요 膀胱小腸肝所異라”

先<sup>선</sup>詳<sup>상</sup>多<sup>다</sup>少<sup>소</sup>之<sup>之</sup>宜<sup>의</sup>하<sup>고</sup>

次<sup>차</sup>察<sup>찰</sup>應<sup>응</sup>至<sup>지</sup>之<sup>之</sup>氣<sup>기</sup>하<sup>라</sup>

<解釋> 제일먼저 기혈다소 자세히 구별하고  
그다음엔 득기여부 적당한가 살펴보라

輕<sup>경</sup>滑<sup>활</sup>慢<sup>만</sup>而<sup>而</sup>未<sup>未</sup>來<sup>來</sup>래<sup>요</sup>

沉<sup>침</sup>澁<sup>삽</sup>緊<sup>긴</sup>而<sup>而</sup>已<sup>已</sup>至<sup>지</sup>지<sup>니</sup><sup>2</sup>

<解釋> 헛돌고 느슨하면 기가오지 않음이요  
무겁고 뻑뻑하면 기가이미 온것이니

[校堪] 2> 輕滑……已至: <針灸大成校釋>에는 注釋文으로 잘못 삽입되어 있다. <鍼灸聚英>, <類經圖翼>, 행림사 <針灸大成> 등에는 모두 正文으로 되어있다.

既<sup>기</sup>至<sup>지</sup>也<sup>야</sup>인 量<sup>량</sup>寒<sup>한</sup>熱<sup>열</sup>而<sup>而</sup>留<sup>유</sup>疾<sup>질</sup>疾<sup>질</sup>하<sup>고</sup>

未<sup>미</sup>至<sup>지</sup>也<sup>야</sup>인 據<sup>거</sup>虛<sup>허</sup>實<sup>실</sup>而<sup>而</sup>候<sup>후</sup>氣<sup>기</sup>하<sup>라</sup>

<解釋> 왔을때는 한열을 참작하여 유침하고  
안왔을때 허실따라 침감을 오게하라

氣<sub>기</sub>之<sub>지</sub>至<sub>지</sub>也<sub>야</sub>엔 如<sub>여</sub>魚<sub>어</sub>吞<sub>呑</sub>鉤<sub>구</sub>餌<sub>이</sub>之<sub>지</sub>沉<sub>침</sub>浮<sub>부</sub>하고  
氣<sub>기</sub>未<sub>미</sub>至<sub>지</sub>也<sub>야</sub>엔 如<sub>여</sub>閑<sub>한</sub>處<sub>처</sub>幽<sub>유</sub>堂<sub>당</sub>之<sub>지</sub>深<sub>심</sub>邃<sub>수</sub><sup>7)</sup>니

<解釋> 득기되면 물고기가 위아래로 요동치듯  
      득기되지 아니하면 고요한 적막일세

7) 邃(수) : 깊다, 깊숙하다.

氣<sub>기</sub>速<sub>속</sub>至<sub>지</sub>而<sub>而</sub>이速<sub>속</sub>效<sub>효</sub>하고  
氣<sub>기</sub>遲<sub>지</sub>至<sub>지</sub>而<sub>而</sub>이不<sub>不</sub>治<sub>치</sub>니라

<解釋> 침감이 빠리오면 효과도 빨리보고  
      침감이 더디오면 치료도 어렵다네

觀<sub>관</sub>夫<sub>부</sub>

九<sub>구</sub>鍼<sub>침</sub><sup>8)</sup>之<sub>지</sub>法<sub>법</sub>법<sub>법</sub>컨대 毫<sub>호</sub>鍼<sub>침</sub>이 最<sub>최</sub>微<sub>미</sub>하니  
七<sub>칠</sub>星<sub>성</sub><sup>9)</sup>上<sub>상</sub>應<sub>응</sub>하고 衆<sub>중</sub>穴<sub>혈</sub>主<sub>주</sub>持<sub>치</sub>니라

<解釋> 구침침법 살펴보니 호침제일 미묘하여  
      하늘의 칠성같이 모든혈을 주재한다

8) 九鍼 : 古代의 九種類의 針具를 지칭한다. 즉 鑱針, 圓針, 鍤針, 鋒針, 鈹針, 圓利針, 毫針, 長針, 大針을 말한다.

9) 七星 : 古人들이 毫鍼을 비유할 때 ‘七星’을 사람의 ‘七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七竅가 人身上部에 있어 하늘에 있는 七星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本<sub>본</sub>形<sub>형</sub>은 金<sub>금</sub>也<sub>야</sub>라 有<sub>유</sub>蠲<sub>견</sub>邪<sub>사</sub>扶<sub>부</sub>正<sub>정</sub>之<sub>지</sub>道<sub>도</sub>하고  
短<sub>단</sub>長<sub>장</sub>은 水<sub>수</sub>也<sub>야</sub>라 有<sub>유</sub>決<sub>결</sub>凝<sub>응</sub>開<sub>개</sub>滯<sub>체</sub>之<sub>지</sub>機<sub>기</sub>하며

<解釋> 본체는 금의성질 사기덜고 정기둑고  
      장단은 수의성질 응체된것 뚫어주며

定<sub>정</sub>刺<sub>차</sub>는 象<sub>상</sub>木<sub>목</sub>이라 或<sub>혹</sub>斜<sub>사</sub>或<sub>혹</sub>正<sub>정</sub>하고  
口<sub>구</sub>藏<sub>장</sub><sup>10)</sup>은 比<sub>비</sub>火<sub>화</sub>라 進<sub>진</sub>陽<sub>양</sub>補<sub>보</sub>羸<sub>리</sub>하며

<解釋> 자침은 목의성질 사자커나 직자하고  
      구장은 화의성질 양기도와 보해주며

10) 口藏 : 침을 입에 머금은 것

循<sub>순</sub>機<sub>기</sub>捫<sub>문</sub>而<sub>而</sub>이可<sub>可</sub>가塞<sub>색</sub>색은以<sub>以</sub>이象<sub>상</sub>상土<sub>토</sub>토니  
實<sub>실</sub>應<sub>응</sub>五<sub>오</sub>行<sub>행</sub>을而<sub>而</sub>이可<sub>可</sub>가知<sub>지</sub>지니라

<解釋> 침자리 만져주고 눌러준은 토의성질  
알고보면 침놓는건 오행의 이치로세

然<sub>연</sub>是<sub>是</sub>시一<sub>一</sub>寸<sub>寸</sub>六<sub>六</sub>分<sub>分</sub><sup>11)</sup>이나包<sub>포</sub>포含<sub>함</sub>함妙<sub>묘</sub>묘理<sub>리</sub>리하고  
雖<sub>수</sub>細<sub>세</sub>楨<sub>楨</sub><sup>12)</sup>於<sub>어</sub>호毫<sub>호</sub>髮<sub>발</sub>이나同<sub>동</sub>貫<sub>관</sub>관多<sub>多</sub>岐<sub>기</sub><sup>13)</sup>하야

<解釋> 일촌육분 길이지만 묘한이치 갖고있고  
호발보다 가는몸체 여러경락 뚫어주며

- 11) 一寸六分：《靈樞·九鍼十二原》에서 “毫鍼의 길이는 三寸六分이라 하였고 《靈樞·九鍼論》에서는 一寸六分이라 하였다. 그 밖에 《鍼灸大全》，《楊敬齋鍼灸全書》，《普濟方》 등에 나오는 本鍼 및 《甲乙經》卷五第二, 《醫心方》卷二第五에 모두 一寸六分으로 되어있다. 임상적으로도 一寸에서 二寸되는 毫鍼을 多用하므로 바꾸어 놓았다.
- 12) 楨(정)：담치는 나무, 담을 칠 때 양쪽에 있는 나무, 즉 근본, 기초의 뜻
- 13) 岐(기)：갈림길, 옆으로 갈려나간 길

可<sub>可</sub>가平<sub>평</sub>평五<sub>오</sub>臟<sub>장</sub>장之<sub>之</sub>지寒<sub>한</sub>한熱<sub>열</sub>열하고  
能<sub>능</sub>능調<sub>조</sub>조六<sub>육</sub>腑<sub>부</sub>부之<sub>之</sub>지虛<sub>허</sub>허實<sub>실</sub>실이니

<解釋> 오장한열 평정하고 육부허실 조리하니

拘<sub>구</sub>攣<sub>련</sub>閉<sub>폐</sub>폐塞<sub>색</sub>색은遣<sub>견</sub>遣<sup>14)</sup>八<sub>팔</sub>팔邪<sub>사</sub>사而<sub>而</sub>이去<sub>거</sub>거矣<sub>의</sub>의요  
寒<sub>한</sub>한熱<sub>열</sub>열痺<sub>비</sub>痺痛<sub>통</sub>은開<sub>개</sub>개四<sub>사</sub>사關<sub>관</sub>관而<sub>而</sub>이已<sub>이</sub>이之<sub>지</sub>지니라

<解釋> 경락폐색 수지구런 팔사혈로 없애주고  
사관혈을 뚫어주어 한열비통 치료한다

- 14) 遣(견)：보내다, 버리다.

凡<sub>범</sub>범刺<sub>자</sub>자者<sub>자</sub>는使<sub>사</sub>사本<sub>본</sub>本神<sub>신</sub>신으로朝<sub>조</sub>조而<sub>而</sub>이後<sub>후</sub>후에入<sub>입</sub>입이나  
既<sub>기</sub>기刺<sub>자</sub>자也<sub>야</sub>엔使<sub>사</sub>사本<sub>본</sub>本神<sub>신</sub>신으로定<sub>정</sub>정而<sub>而</sub>이氣<sub>기</sub>기隨<sub>수</sub>수니

<解釋> 침놓을땐 환자정신 모여들게 하여놓고  
침놓고선 안정시켜 기통하게 하여주니

神<sub>신</sub>신不<sub>불</sub>불朝<sub>조</sub>조而<sub>而</sub>이勿<sub>勿</sub>勿刺<sub>자</sub>자하고



神<sub>신</sub>已<sub>이</sub>定<sub>정</sub>而<sub>而</sub>可<sub>可</sub>施<sub>시</sub>하야

<解釋> 만약기신 모이잖음 자침하지 말것이며  
기신안정 되거들랑 수기법을 실시하라

定<sub>정</sub>脚<sub>각</sub>處<sub>처</sub>엔 取<sub>취</sub>氣<sub>기</sub>血<sub>혈</sub>로 爲<sub>爲</sub>主<sub>주</sub>意<sub>의</sub><sup>15)</sup>하고

下<sub>하</sub>手<sub>수</sub>處<sub>처</sub>엔 認<sub>인</sub>水<sub>수</sub>火<sub>화</sub><sup>3)</sup>이 是<sub>是</sub>根<sub>근</sub>基<sub>기</sub>니라

<解釋> 침놓는혈 결정할때 기혈다소 주의하고  
자침할때 기본으로 수화관계 알아두라

15) 經絡의 氣血多少를 고려하여 多氣多血하면 出氣出血하고 少氣하면 出氣하지 말고(즉 惡氣하고) 少血하면 出血하지 않는다  
(즉 惡血한다).

[校堪] 3> 水火: 《類經附翼》에서는 '水火'로 되어있으나 《鍼灸大成》 등에는 '水木'으로 되어있다. 上句의 氣血과 對句  
가 된다고 보았을 때 '水火'가 옳은 것 같다.

天<sub>천</sub>地<sub>지</sub>人<sub>인</sub>三<sub>삼</sub>才<sub>재</sub>也<sub>야</sub>는 湧<sub>용</sub>泉<sub>천</sub>이 同<sub>동</sub>璇<sub>선</sub>璣<sub>기</sub>百<sub>백</sub>會<sub>회</sub>하고

上<sub>상</sub>中<sub>중</sub>下<sub>하</sub>三<sub>삼</sub>部<sub>부</sub>也<sub>야</sub>는 大<sub>대</sub>包<sub>포</sub>與<sub>여</sub>天<sub>천</sub>樞<sub>추</sub>地<sub>지</sub>機<sub>기</sub>니라

<解釋> 삼재인 천지인은 용천선기 백회이며  
삼부인 상중하는 대포천추 지기로다

陽<sub>양</sub>驕<sub>교</sub>陽<sub>양</sub>維<sub>유</sub>并<sub>병</sub>督<sub>독</sub>帶<sub>대</sub><sup>4)</sup>는 主<sub>주</sub>肩<sub>견</sub>背<sub>배</sub>腰<sub>요</sub>腿<sub>퇴</sub>在<sub>在</sub>表<sub>표</sub>之<sub>之</sub>病<sub>병</sub>하고

陰<sub>음</sub>驕<sub>교</sub>陰<sub>음</sub>維<sub>유</sub>任<sub>인</sub>衝<sub>충</sub>脈<sub>맥</sub><sup>5)</sup>은 去<sub>거</sub>心<sub>심</sub>腹<sub>복</sub>脇<sub>협</sub>肋<sub>력</sub>在<sub>在</sub>裡<sub>리</sub>之<sub>之</sub>疑<sub>의</sub>니라(疑<sub>疑</sub>者<sub>者</sub>는 疾<sub>疾</sub>也  
라)

<解釋> 양교양유 독대맥은 견배요퇴 다스리고  
음교음유 임충맥은 심복협력 다스린다

[校堪] 4> 帶: 《普濟方》, 《鍼灸大全》 및 《楊敬齋鍼灸全書》에 모두 '脈'으로 되어있다. 앞에 나오는 陽驕, 陽維 및 督脈이  
다 陽에 속하므로 脈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5> 脈: 《普濟方》에는 같게 되어있다. 그러나 《鍼灸大全》 및 《楊敬齋鍼灸全書》에는 모두 '帶'로 되어있다. 앞에 나오  
는 陰驕, 陰維, 任脈, 衝脈, 및 帶脈이 모두 陰에 속하므로 脈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二<sub>이</sub>陵<sub>릉</sub>二<sub>이</sub>驕<sub>교</sub>二<sub>이</sub>交<sub>교</sub><sup>16)</sup>는 似<sub>사</sub>續<sub>속</sub>而<sub>而</sub>交<sub>교</sub>五<sub>오</sub>大<sub>대</sub><sup>17)</sup>하고

兩<sub>양</sub>間<sub>간</sub>兩<sub>양</sub>商<sub>상</sub>兩<sub>양</sub>井<sub>정</sub><sup>18)</sup>은 相<sub>상</sub>依<sub>의</sub>而<sub>而</sub>別<sub>별</sub>兩<sub>양</sub>支<sub>지</sub>라

<解釋> 이릉이교 이교혈은 마주보며 붙어있고  
양간양상 양정혈은 두갈래로 나뉘졌다

- 16) 二陵은 陽陵泉·陰陵泉, 二蹻는 陰蹻(照海)·陽蹻(申脈), 二交는 陰交·陽交를 말하며, 《講義》에서는 《針灸大成》과는 달리 二交를 膽經의 陽交와 脾經의 三陰交로 보았다.  
 17) 五大: 五大는 五體로 頭部·四肢를 합쳐 말한다.  
 18) 兩間兩商兩井: 兩間은 二間·三間, 兩商은 少商·商陽, 兩井은 天井·肩井을 말한다

大대抵저取취穴혈之法법은 必필有유分분寸寸乎하니  
 先先審審自自意意의<sup>19)</sup>하고 次次觀觀肉肉分分乎야

<解釋> 대체로 취혈법은 분촌결정 한다음에  
 마음으로 헤아려서 분육상태 관찰하고

19) 先審自意: 마음으로 먼저 어떤 病인지, 어떤 經에 속하는지, 어떤 穴을 쓸 것인지를 헤아린다.

或或伸伸屈屈而而得得之지하고  
 或或平平直直而而安安定定이니

<解釋> 어떤혈은 굽히거나 펴고서 취혈하며  
 어떤혈은 눕히거나 앉혀서 취혈한데

在在陽陽部部筋筋骨骨之지側측은 陷陷下下爲爲眞眞이요  
 在在陰陰分分鄰鄰<sup>20)</sup>膈膈之지間간은 動動脈脈相相應應이니라

<解釋> 양부의 혈자리는 근골측의 함요부요  
 음부의 혈자리는 극곽간의 동맥처라

20) 鄰(극): 틈, 隙(극)과 仝字

取취五五穴穴하여 用용一일穴穴而而必필端端하고  
 取취三삼經經하여 用용一일經經而而可가正正이니

<解釋> 경혈하나 잡더라도 상하좌우 살펴보고  
 경락하나 잡더라도 좌우경락 구별하니

頭頭部部與與肩肩部部를 詳상分分하면  
 督督脈脈與與任任脈脈을 易이定定이니라

<解釋> 두부와 견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독맥과 임맥의 경혈들을 쉽게 찾네

明<sub>표</sub>標<sub>與</sub>與<sub>本</sub>本<sup>21)</sup>은 論<sub>는</sub>刺<sub>자</sub>深<sub>심</sub>深<sub>자</sub>淺<sub>천</sub>淺<sub>之</sub>之<sub>經</sub>經<sub>경</sub>이요  
住<sub>주</sub>痛<sub>통</sub>移<sub>이</sub>疼<sub>동</sub>疼<sub>은</sub>은 取<sub>취</sub>相<sub>상</sub>交<sub>교</sub>相<sub>상</sub>貫<sub>貫</sub>貫<sup>22)</sup>之<sub>之</sub>之<sub>逕</sub>逕<sup>23)</sup>이니

<解釋> 표와본을 잘알아서 심자천자 이해하고  
동통을 없애는데 교관이치 취할지니

21) 標本：標本은 한 가지만 있지 않고 六經의 標本, 天地陰陽의 標本, 傳病의 標本 등이 있다. 인체에 있어서 內外, 陰陽, 臟腑, 經絡의 標本이 있으며 질병에 있어서도 先病은 本, 後傳은 標가 된다. 대개가 本을 重視하고 먼저 治療해야 한다.

22) 相交相貫：교관(交貫)의 이치는 침법에서의 좌전(左轉), 우전(右轉), 육수(六數)와 구수(九數) 등과 같이 陰陽이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원리로 경맥에도 교관하는 경혈이 있는데 15絡穴이 그것이다.

23) 逕(경)：좁은 길, 소로, 소로를 지나감.

豈<sub>기</sub>不<sub>不</sub>聞<sub>문</sub>聞<sub>문</sub>

臟<sub>장</sub>腑<sub>부</sub>病<sub>병</sub>병<sub>에</sub>에 而<sub>이</sub>求<sub>구</sub>門<sub>문</sub>海<sub>해</sub>俞<sub>수</sub>募<sub>모</sub>募<sup>24)</sup>之<sub>之</sub>微<sub>미</sub>미  
經<sub>경</sub>絡<sub>락</sub>滯<sub>체</sub>체<sub>에</sub>에 而<sub>이</sub>求<sub>구</sub>原<sub>원</sub>別<sub>별</sub>交<sub>교</sub>會<sub>회</sub>會<sup>25)</sup>之<sub>之</sub>道<sub>도</sub>도아

<解釋> 장부병에 문해수모 혈의효과 필요하고  
경락병에 원별교회 혈의효과 찾아보세

24) 門海俞募：문해(門海)는 장문(章門)이나 기해(氣海)와 같은 穴을 말한다. 수(俞)는 오장육부의 수혈(俞穴)로 척추 양쪽에 있다. 모(募)는 오장육부의 모혈(募穴)을 말한다.

25) 原別交會：원(原)은 십이경의 원혈(原穴)을 말한다. 별(別)은 양별(陽別)로 수족 3양경의 낙혈을, 교(交)는 음교(陰交)로 수족 3음경의 낙혈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회(會)는 팔회혈(八會穴)을 말한다.

更<sub>갱</sub>窮<sub>궁</sub>四<sub>사</sub>根<sub>근</sub>三<sub>삼</sub>結<sub>결</sub>結<sup>26)</sup>하여 依<sub>의</sub>標<sub>표</sub>本<sub>本</sub>而<sub>而</sub>刺<sub>자</sub>刺<sub>자</sub>無<sub>무</sub>不<sub>不</sub>瘥<sub>瘥</sub>전하고  
但<sub>단</sub>用<sub>용</sub>八<sub>팔</sub>法<sub>법</sub>五<sub>오</sub>門<sub>문</sub>門<sup>27)</sup>하여 分<sub>분</sub>主<sub>주</sub>客<sub>객</sub>而<sub>而</sub>鍼<sub>침</sub>鍼<sub>침</sub>無<sub>무</sub>不<sub>不</sub>效<sub>效</sub>효니라

<解釋> 사근삼결 표본으로 낫지못할 병이없고  
팔법오문 주객으로 모든병에 효과있다

26) 四根三結：四根은 四肢를, 三結은 頭·胸·腹을 말한다.

27) 八法五門：八法은 八脈交會穴을, 五門은 五俞穴을 말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다.

八<sub>팔</sub>脈<sub>맥</sub>始<sub>시</sub>終<sub>종</sub>連<sub>연</sub>八<sub>팔</sub>會<sub>회</sub>會<sub>회</sub>는 本<sub>本</sub>是<sub>是</sub>紀<sub>기</sub>綱<sub>綱</sub>綱<sub>강</sub>이요

十<sub>십</sub>二<sub>이</sub>經<sub>경</sub>絡<sub>락</sub>十<sub>십</sub>二<sub>이</sub>原<sub>원</sub>原<sub>원</sub>은 是<sub>是</sub>爲<sub>爲</sub>樞<sub>추</sub>要<sub>要</sub>요니

<解釋> 십이정경 기경팔맥 인체의 버리되고  
십이원혈 팔회혈은 경락의 요혈이니

一<sub>일</sub>日<sub>일</sub>에 取<sub>취</sub>六<sub>육</sub>十<sub>십</sub>六<sub>육</sub>穴<sub>穴</sub>之<sub>之</sub>法<sub>법</sub>法<sup>28)</sup>이면 方<sub>방</sub>見<sub>見</sub>幽<sub>유</sub>微<sub>微</sub>미요

一일時시에 取취一일十십二이經經之지原원이면 始시知지要요妙묘니라

<解釋> 하루의 유주이치 미묘한 효과보고  
십이경의 원혈이치 치료의 요체일세

28) 六十六穴之法：子午流注法에 따른 配穴法을 말한다. 《針灸大成》卷五에 여러 가지 流注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66穴은 12經의 5俞穴에 6陽經의 原穴을 합친 수이다.

原원夫부

補보瀉사之지法법은 非비呼호吸흡而而在在제手수指지하고  
速속效효之지功공은 要요交교正정而而識識本本經經<sup>29)</sup>이니라

<解釋> 보사법은 호흡보다 수기에 있다하니  
속한효과 보려거든 본경교정 잘익힌다

29) 交正,本經：交正이란 大腸과 肺가 傳送之府가 되며 心과 小腸이 受盛之官이 되며 脾와 胃가 消化之官이 되며 肝과 膽이 清靜之位가 되며 膀胱과 腎은 陰陽相通하여 表裏相應하게 됨을 말한다. 本經이란 受病之經으로서 心臟病에 小腸經穴을 兼取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穴을 잃을지언정 그 經을 잃지 말고 그 때를 놓칠지언정 그 氣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寧失其穴이언정 勿失其經하고 寧失其時언정 勿失其氣라).

交교經經繆무刺자는 左좌有有病병而而右우畔畔<sup>30)</sup>取취하고  
瀉사絡絡<sup>31)</sup>遠원鍼침은 頭두有有病병而而脚각上上상鍼침이니라

<解釋> 교경자침 무자법은 좌병에 우혈이요  
사락하는 원자법은 두부병에 각부로다

30) 畔(반)：두둑, 눈발의 경계, 지경

31) 瀉絡：三稜鍼으로 絡脈을 刺하여 出血시키는 것을 '瀉絡法'이라고 한다. 氣滯血瘀에 흔히 쓴다.

巨거刺자與어繆무刺자<sup>32)</sup>는 各各異이나  
微미鍼침與어妙묘刺자는 相상通통이니

<解釋> 거자법과 무자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자침의 미묘함은 서로가 한가질세

32) 巨刺法과 繆刺法：經脈을 刺하는 巨刺法과 絡脈을 刺하는 繆刺法은 刺法은 동일하나 經脈과 絡脈의 차이가 있다.

觀관部부분而而而而知지經經絡絡之지虛虛實實<sup>33)</sup>하고  
視시沉침浮부而而而而辨辨臟臟腑腑之지寒寒溫溫이라

<解釋> 자침깊이 관찰하여 경락허실 알아내고

맥의부침 살펴봐서 장부한은 구별하라

33) 虛實 : 刺鍼할 때 天地人 三部에서 느끼는 鍼感의 虛實을 말한다.

且차夫부

先선순영鍼침耀요는 而이慮려鍼침損손이요

次차藏장口구內내는 而이欲욕鍼침溫온이니

<解釋> 침의손상 막기위해 침을먼저 댄해주고  
입안에다 머금은건 따뜻하게 덤힘이라

目목無무外외視시하고 手수如여握악虎호하며

心심無무內내慕모하야 如여待대貴귀人인이라

<解釋> 한눈을 팔지말고 힘있게 침잡고서  
다른생각 하지말고 기가오길 기다리네

左좌手수重중而이多다按안은 欲욕순령氣기散산이요

右우手수輕경而이徐徐徐徐入입은 不不痛痛之지因인이라

<解釋> 왼손으로 세게눌러 몽쳐진기 풀어지고  
오른손로 가벼웁게 침을줘야 아픔없네

空공心심恐공怯怯하야 直직立立側측而이多다暈昏하고

背배目목沉침陷陷<sup>34)</sup>하면 坐좌臥와平평而이沒沒昏昏이니라

<解釋> 빈속이나 겁을내고 세위눌때 침훈잡고  
안뵈이고 꼭누르며 바로누면 현훈없네

34) 陷(겹) : 따다, 활귀다, 손으로 따냄. 沉陷은 손가락으로 혈을 꼭 누르는 것이다.

推추於어十십干간十십變變<sup>35)</sup>하야 知지孔孔穴穴之지開개闔합하고

論論其其기五五行행五五臟臟하야 察察日日時時之지旺왕衰衰<sup>36)</sup>면

伏복如여橫橫弩弩<sup>37)</sup>하야 應應若若發發機機기니라

<解釋> 십간십변 추론하여 개합경혈 알아두고  
오행오장 논구하여 쇠왕일시 살펴두어

기다렸다 때가되면 지체없이 침놓아라

- 35) 十變：日과 時에 따라 임하는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十干의 변화에 따라 氣血流注 開闔과 결합하여 時에 맞춰 取穴하는 것으로 즉 고전 침술의 靈龜八法이다.
- 36) 論其五行五臟 察日時之旺衰：十干을 五臟과 五行으로 배속하고, 五臟의 氣와 五行 相生相克의 규율에 근거하여 질병의 旺衰와 경중을 살피고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다. 日時의 상생과 상극을 받아서, 本臟을 생하는 것은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旺한 것이고, 本臟을 극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衰가 된다.
- 37) 橫弩：쇠뇌, 가로로 놓고 기계를 사용하여 쏘는 활

陰음교陽양別<sup>38)</sup>은 而이定정血혈暈훈하고

陰음驕교陽양維<sup>6>39)</sup>는 而이하하胎태衣의니라

<解釋> 음교혈과 양지혈은 혈허혈훈 치료하고  
조해혈과 외관혈은 태반을 내려주네

[校勘] 6> 陽維：《楊敬齋鍼灸全書》에는 ‘陰維’라 하였는데 의미가 더 낫다.

38) 陰交陽別：陰交는 陰交穴은 臍下一寸의 任脈上의 陰交穴과 足內踝上 三寸의 脾經上의 三陰交를 말하는데 이 兩穴로 부인들의 血暈을 치료한다. 原文의 陽別은 三焦經이 生命의 원천이 된다고 하여 三焦經의 原穴인 陽池穴로 보는 이론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陽別은 어느 혈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三焦經의 陽池穴로 보는 사람이 있다.(陳璧疏의 說)

39) 陰驕陽維：陰驕穴인 腎經의 照海穴과 陽維穴인 三焦經의 外關은 胎衣를 내려준다. 그러나 여기의 外關穴은 《鍼灸大全》과 《楊敬齋鍼灸全書》에 모두 內關穴로 되어있는데 原文의 ‘陽維’를 ‘陰維’로 보는 입장과 함께 타당하다고 본다.

痺痺厥偏편枯고는 迎영隨수로 俾비經絡絡接接續속하고

崩崩漏루帶대하는 溫은補보하야 使사氣기血혈依의歸귀니

<解釋> 비증이나厥증또는 편고증을 치료할때  
영수보사 사용하여 경락소통 시켜주고  
여자들의 붕루증과 대하증을 치료할때  
온법보법 사용하여 기혈돌려 보내주네

靜靜以이久구留류하야 停정鍼침待대之지하라

<解釋> 수기법을 쓰고나서 유침시켜 두었다가  
긴장감이 풀어지고 이완된후 발침하라

必필準준者자는 取취照照海海하야 治치喉후中中之지閉閉塞塞하고

端단의적處처는 用용大대鍾종하야 治치心심內內之지呆매痴치니

<解釋> 인후폐색 치료할때 조해혈을 꼭취하고  
치매병을 다스림에 대종혈을 기억하라

大대抵저

疼동痛통은 實실이니 瀉사요

痒양麻마는 虛허니 補보니라

<解釋> 대개동통 실증이니 사법사용 해야하고  
가려웁고 저리는건 허증이니 보해주라

體체重중節절痛통엔 而이俞수居거하고

心심下하痞비滿만엔 而이井정主주니라

<解釋> 몸무겁고 마디아픔 수혈에다 침을넣고  
심하의 비만에는 정혈에다 침놓아라

心심脹창咽인痛통은 鍼침太태衝중而이必필除제하고

脾비冷랭胃위疼疼은 瀉사公공孫손而이立립愈유하며

<解釋> 심창과 인통에는 태충혈에 침을 넣고  
비허랭과 위동통은 공손혈을 사해주라

胸흉滿만腹복痛통은 刺자內내關관하고

脇협疼疼동肋복痛통은 鍼침飛飛虎<sup>40)</sup>니라

<解釋> 내관혈에 자침하여 흉만복통 치료하고  
비호혈에 자침하여 협복동통 치료하네

40) 飛虎 : 飛虎穴은 곧 支溝穴이다.

筋근攣련骨골痛통은 而이補보魂혼門문하고

體체熱열勞노嗽수는 而이瀉사魄백戶호하라

<解釋> 근련축과 골절통은 혼문혈을 보해주고  
신체열과 노수에는 백호혈을 사해주네

頭두風풍頭두痛통은 刺자申申脈맥與여金金門문하고

眼안痒양眼안疼疼은 瀉사光光明명與<sup>7)</sup>地지五오하라

<解釋> 두풍과 두통에는 신맥금문 자침하고  
눈가렵고 아플때는 광명지오 사해주라

[校勘] 7> 與：原作에 '於'로 되어있으나 《普濟方》에 의거하여 고쳤다.

瀉<sub>사</sub>陰<sub>음</sub>郄<sub>극</sub>止<sub>지</sub>盜<sub>도</sub>汗<sub>한</sub>은 治<sub>치</sub>小<sub>소</sub>兒<sub>어</sub>骨<sub>골</sub>蒸<sub>증</sub>이요  
刺<sub>자</sub>偏<sub>편</sub>歷<sub>력</sub>利<sub>리</sub>이小<sub>소</sub>便<sub>변</sub>은 醫<sub>의</sub>大<sub>대</sub>人<sub>인</sub>水<sub>수</sub>蠱<sub>고</sub><sup>41)</sup>라

<解釋> 도한에는 음극이니 소아골증 치료하고  
소변불통 편력이니 성인수고 치료하네

41) 水蠱(수고): 또는 水鼓, 창만의 하나. 음식조절을 잘못하거나 肝氣鬱結로 脾가 상해서 수습이 몰려 생기며, 배가 점점 커지고 움직이면 배에서 물소리가 나며 늘 물을 마시려하고 온 몸이 붓는데 손으로 눌러보면 우묵하게 들어가며 오줌량은 적다.

中<sub>중</sub>風<sub>풍</sub>은 環<sub>환</sub>跳<sub>도</sub>而<sub>而</sub>宜<sub>의</sub>刺<sub>의</sub>자<sub>자</sub>요  
虛<sub>허</sub>損<sub>손</sub>은 天<sub>천</sub>樞<sub>추</sub>而<sub>而</sub>可<sub>可</sub>取<sub>취</sub>니<sub>니</sub>라

<解釋> 중풍에는 반드시 환도혈에 자침하고  
여러가지 허손병에 천추혈을 사용하라

由<sub>유</sub>是<sub>是</sub>시<sub>시</sub>로

午<sub>우</sub>前<sub>前</sub>卯<sub>묘</sub>後<sub>後</sub>에 太<sub>태</sub>陰<sub>음</sub>生<sub>생</sub>而<sub>而</sub>疾<sub>疾</sub>溫<sub>溫</sub>이<sub>이</sub>요  
離<sub>리</sub>左<sub>좌</sub>酉<sub>유</sub>南<sub>남</sub>은 月<sub>월</sub>朔<sub>삭</sub>死<sub>사</sub>而<sub>而</sub>速<sub>속</sub>冷<sub>냉</sub>이<sub>이</sub>니<sub>니</sub>라<sup>42)</sup>

<解釋> 묘후오전 보름이전 서둘러서 온법쓰고  
이좌유남 보름이후 신속하게 냉법쓰네

42) 午時前에서 卯時後까지는 곧 辰時, 巳時로서 달이 生하는 시간이므로 빨리 溫補해주고 離左에서 西南까지는 곧 未時, 申時로서 달이 死하는 시간이므로 속히 冷瀉해준다.

循<sub>순</sub>捫<sub>문</sub>彈<sub>탄</sub>努<sub>노</sub><sup>43)</sup>하야 留<sub>유</sub>吸<sub>흡</sub>母<sub>모</sub>而<sub>而</sub>堅<sub>堅</sub>長<sub>長</sub>이<sub>이</sub>요  
爪<sub>조</sub>下<sub>하</sub>伸<sub>신</sub>提<sub>제</sub>하야 疾<sub>疾</sub>呼<sub>호</sub>子<sub>자</sub>而<sub>而</sub>噓<sub>허</sub>短<sub>短</sub>이<sub>이</sub>라

<解釋> 순문탄노 수법으로 모혈에다 서입하되  
숨마실때 발침하면 이것이 보법이요  
조하신제 수법으로 자혈에다 속히놓되  
숨내쉴때 발침하면 이것이 사법이라

43) 循捫彈努: 手技法, '循'이란 刺針후에 經脈 순행의 경로를 따라서 經穴이 소속된 經絡의 상하부를 가볍게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經氣의 運行을 도와주고 針刺시에 得氣를 쉽게하기 위한 방법이다. '捫'이란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침을 뺄



후에 穴을 누르고 문지르는 것이다. ‘彈’이란 손가락으로 침의 끝부분을 가볍게 튕겨주어 針體를 가볍게 진동하는 것으로 針感을 강하게 하고 침자극을 더하기 위한 방법이다.

動退空歌<sup>44</sup> 迎奪右而瀉涼<sup>44</sup> 이요  
推內進搓<sup>45</sup> 隨濟左而補暖<sup>45</sup> 이니라

<解釋> 동퇴공혈 영탈우선 열증을 사해주고  
추남진차 수제좌선 한증을 보해주네

44) 動退空歌 迎奪右而瀉涼 : ‘動退’는 鍼을 搖動하면서 빼는 방법이고, ‘空歌’은 손을 떼어 침을 가만히 두는 방법이며, ‘迎奪’은 經絡方向에 반대로 刺鍼하여 瀉하는 방법이고, ‘右’는 鍼을 오른쪽으로 捻轉하는 방법이다.

45) 推內進搓 隨濟左而補暖 : ‘推內進搓’는 침을 밀어넣을 때 서서히 비벼넣는 방법이고, ‘隨濟’는 經絡 흐름대로 침을 놓는 방법이며, ‘左’는 왼쪽으로 捻轉하는 방법이다.

慎<sup>신</sup>之<sup>지</sup>하라!

大患<sup>환</sup>危<sup>위</sup>疾<sup>질</sup>色<sup>색</sup>脈<sup>맥</sup>不<sup>不</sup>順<sup>순</sup>은 而<sup>而</sup>이<sup>이</sup>莫<sup>莫</sup>鍼<sup>침</sup>하고  
寒<sup>한</sup>熱<sup>열</sup>風<sup>풍</sup>陰<sup>음</sup>飢<sup>기</sup>飽<sup>포</sup>醉<sup>취</sup>勞<sup>로</sup>는 而<sup>而</sup>이<sup>이</sup>切<sup>절</sup>忌<sup>기</sup>니라

<解釋> 증병이나 색맥불순 침을 놓지 말 것이며  
나쁜날씨 기포취로 절대침을 놓지마소

望<sup>망</sup>不<sup>不</sup>補<sup>보</sup>而<sup>而</sup>이<sup>이</sup>晦<sup>회</sup>不<sup>不</sup>瀉<sup>사</sup>하고  
弦<sup>현</sup><sup>46</sup> 不<sup>不</sup>奪<sup>탈</sup>而<sup>而</sup>이<sup>이</sup>朔<sup>삭</sup>不<sup>不</sup>濟<sup>계</sup>니라

<解釋> 보름에는 불보하고 그믐에는 불사하며(사치 말고)  
상하현엔 불사하고 초생일엔 불보일세(보치마소)

46) 弦(현) : 上弦은 작은 달에 初八日, 큰 달에 初九日이며 下弦은 작은 달에 二十二日, 큰 달에 二十三日이다.

精<sup>정</sup>其<sup>기</sup>心<sup>심</sup>而<sup>而</sup>이<sup>이</sup>窮<sup>궁</sup>其<sup>기</sup>法<sup>법</sup>하야 無<sup>無</sup>灸<sup>구</sup>艾<sup>애</sup>而<sup>而</sup>이<sup>이</sup>壞<sup>괴</sup>其<sup>기</sup>皮<sup>피</sup>하고  
正<sup>정</sup>其<sup>기</sup>理<sup>리</sup>而<sup>而</sup>이<sup>이</sup>求<sup>구</sup>其<sup>기</sup>原<sup>원</sup>하야 免<sup>免</sup>投<sup>투</sup>鍼<sup>침</sup>而<sup>而</sup>이<sup>이</sup>失<sup>실</sup>其<sup>기</sup>位<sup>위</sup>니라

<解釋> 정성스런 마음으로 침구법을 연구하여  
뜸뜨때는 환자피부 손상되지 않게하고  
침구원리 바로알고 질병근원 탐구하여  
침눌때는 침자리를 잃지 말고 기억하소

避<sup>피</sup>灸<sup>구</sup><sup>47</sup> 處<sup>처</sup>而<sup>而</sup>이<sup>이</sup>加<sup>가</sup>四<sup>사</sup>肢<sup>지</sup>면 四<sup>사</sup>十<sup>십</sup>有<sup>유</sup>九<sup>구</sup>요  
禁<sup>금</sup>刺<sup>자</sup><sup>48</sup> 處<sup>처</sup>而<sup>而</sup>이<sup>이</sup>除<sup>제</sup>六<sup>육</sup>俞<sup>수</sup>면 二<sup>이</sup>十<sup>십</sup>有<sup>유</sup>二<sup>이</sup>니라

<解釋> 금구혈은 사지정혈 포함하니 사십구혈  
금침혈은 육부수혈 제하고서 스물두혈

- 47) 避灸: 禁灸穴, 고전문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十四經發輝》에는 45穴, 《東醫寶鑑》에는 52穴, 《鍼灸經驗方》에는 49穴로 되어 있다.
- 48) 禁刺: 禁針穴, 《十四經發輝》에는 22穴, 《東醫寶鑑》에는 34穴, 《千金方》에는 30穴, 《鍼灸經驗方》에는 34혈 등 고전문헌마다 禁針穴의 수가 서로 다르다.

抑<sup>억</sup>又<sup>우</sup>聞<sup>문</sup>

高<sup>고</sup>皇<sup>황</sup>이 抱<sup>포</sup>疾<sup>疾</sup> 未<sup>未</sup>瘥<sup>瘥</sup> 差<sup>차</sup>에  
李<sup>이</sup>氏<sup>씨</sup>가 刺<sup>자</sup>巨<sup>거</sup>闕<sup>궐</sup> 而<sup>而</sup>이 後<sup>후</sup> 蘇<sup>소</sup>하<sup>하</sup>고<sup>49)</sup>

<解釋> 듣자하니 고헥께서 병이들어 낫지않자  
이씨직접 거궐혈에 침을놓자 깨어났고

49) 李氏가 高皇을 治療하였다는 故事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魏書》에 “李修의 字는 恩祖인데 太和中에 禁內에 있으면서 高祖와 文明太后의 患候가 있을적에 鍼藥을 써서 많은 效果를 보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巨闕에 침놓았다는 일은 찾을 수 없다.

太<sup>태</sup>子<sup>자</sup>가 暴<sup>폭</sup>死<sup>사</sup> 爲<sup>爲</sup> 厥<sup>궐</sup>에  
越<sup>월</sup>人<sup>인</sup>이 鍼<sup>침</sup> 維<sup>유</sup>會<sup>회</sup> 而<sup>而</sup>이 復<sup>부</sup>醒<sup>성</sup><sup>50)</sup>이라

<解釋> 궐태자가 홀연시킬 앓아죽게 되었을때  
진월인이 유회혈에 침을놓자 깨어났네

50) 越人 곧 秦越人으로 別名이 扁鵲이다. 《史記》 扁鵲倉公列傳에 “越人이 淸나라를 지날적에 淸태자가 죽었다한데……扁鵲이 말하기를 太子처럼 아픈 病을 尸厥이라한다……太子는 아직 죽지 않았다……이에 弟子 子陽을 보내 三陽五會에 침을 놓아 조금 있으니 太子가 蘇生하자 子豹를 시켜 五分의 뜸을 뜨게하고……이십일이 지나자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肩<sup>견</sup>井<sup>정</sup> 曲<sup>곡</sup>池<sup>지</sup>는 甄<sup>견</sup>權<sup>권</sup><sup>51)</sup>이 刺<sup>자</sup>臂<sup>비</sup> 痛<sup>통</sup> 而<sup>而</sup>이 復<sup>부</sup>射<sup>사</sup>하<sup>하</sup>고  
懸<sup>현</sup>鍾<sup>종</sup> 環<sup>환</sup>跳<sup>도</sup>는 華<sup>화</sup>陀<sup>타</sup><sup>52)</sup> | 刺<sup>자</sup>臂<sup>비</sup> 足<sup>족</sup> 而<sup>而</sup>이 立<sup>립</sup>行<sup>행</sup>이라

<解釋> 견권은 견비통에 견정곡지 자침하고  
화타는 절름발이 현중환도 침놓았다

- 51) 甄權(견권): 甄權은 唐代의 名醫로 許州扶溝(지금의 河南省 扶溝縣)사람이며 鍼灸에 능하였으며 晩年에 唐太宗으로부터 朝散大夫를 下賜받았으며 《脈經》과 《鍼方》 및 《明堂人形圖》 등의 책을 撰하였다.
- 52) 華陀(화타): 華佗는 字가 元化이며 潁川 초인이다. 方藥에 정통하여 처방은 몇 가지 약에 불과하였으며 鍼灸 또한 몇가지 穴에 불과하였다. 《後漢書》《三國志》《蜀異志》《怪志》 등의 책에 華陀에 대한 기록이 자못 상세하다. 別傳에 “어떤 이가 다리를 절어 걷지 못하자 화타가 진맥하더니 옷을 벗겨 등에 수십 개의 점을 찍는데 거리가 一寸 또는 五寸쯤이라…… 各穴에 일곱장씩 뜸을 뜨라 하였는데 뜸 뜸 곳이 아물자 이내 걸어다니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懸鐘과 環跳로 절름발이를 치료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秋<sup>53)</sup> 추<sup>53)</sup>夫<sup>부</sup> 鍼<sup>침</sup>腰<sup>요</sup>俞<sup>수</sup>而<sup>이</sup>鬼<sup>귀</sup>免<sup>면</sup>沉<sup>침</sup>疴<sup>아</sup><sup>54)</sup> 하고  
 王<sup>왕</sup>纂<sup>찬</sup><sup>55)</sup> 은 鍼<sup>침</sup>交<sup>교</sup>俞<sup>수</sup>而<sup>이</sup>妖<sup>요</sup>精<sup>정</sup><sup>56)</sup> 立<sup>입</sup>出<sup>출</sup>하며

<解釋> 추부는 요수혈로 고질병을 낫게했고  
 왕찬은 교수혈로 귀신병을 낫게했다.

53) 秋夫(추부): 徐秋夫는 六朝(宋)人으로 침을 잘 놓았다. 이 일은 《南史》와 張部傳 및 《江南通志》에 나온다.  
 54) 疴(아): 또는 痾(아) 숙병(宿病), 병이 더해지는 모양, 沉疴는 중병을 말한다.  
 55) 王纂(왕찬): 王纂은 《古今醫統》에 “宋나라 海陵인으로 經方을 두루 보았고 鍼石에 정통하여 遠近에서 그를 알았으며 치료효과가 좋았다.”고 실려있다.  
 56) 妖精(요정): 요괴(妖怪), 요사스러운 귀신, 도깨비, 요귀

取<sup>취</sup>肝<sup>간</sup>俞<sup>수</sup>與<sup>여</sup>命<sup>명</sup>門<sup>문</sup>하야 使<sup>사</sup>瞽<sup>고</sup><sup>57)</sup> 士<sup>사</sup>로 視<sup>시</sup>秋<sup>추</sup>毫<sup>호</sup>之<sup>지</sup>末<sup>말</sup>하고  
 刺<sup>차</sup>少<sup>소</sup>陽<sup>양</sup>與<sup>여</sup>交<sup>교</sup>別<sup>별</sup><sup>58)</sup> 하야 俾<sup>비</sup>聾<sup>농</sup>夫<sup>부</sup>로 聽<sup>청</sup>夏<sup>하</sup>蚋<sup>예</sup><sup>59)</sup> 之<sup>지</sup>聲<sup>성</sup>이라하니

<解釋> 간수명문 침놓아서 장님의눈 밝게하고  
 청회양지 침놓아서 귀머거리 밝게했네

57) 瞽(고): 소경, 먼눈.  
 58) 少陽與交別: 《鍼灸歌賦校釋》과 《鍼灸大成講義》에서는 원문의 少陽은 聽會穴, 交別은 陽池穴로 보았다.  
 59) 蚋(예): 모기

嗟<sup>차</sup>夫<sup>부</sup>라!  
 去<sup>거</sup>聖<sup>성</sup>逾<sup>유</sup>遠<sup>원</sup>일새 此<sup>차</sup>道<sup>도</sup>漸<sup>점</sup>墜<sup>추</sup>하야  
 或<sup>혹</sup>不<sup>부</sup>得<sup>득</sup>意<sup>의</sup>而<sup>이</sup>散<sup>산</sup>其<sup>기</sup>穴<sup>혈</sup>하고  
 或<sup>혹</sup>愆<sup>건</sup><sup>60)</sup> 其<sup>기</sup>能<sup>능</sup>而<sup>이</sup>犯<sup>범</sup>禁<sup>금</sup>忌<sup>기</sup>로다

<解釋> 성현난지 오래되어 침뜸이치 쇠퇴하고  
 어떤이는 뜻도몰라 혈자리를 못잡고서  
 어떤이는 거침없이 금기를 범하도다

60) 愆(건): 어그러질, 허물, 과실

愚<sup>우</sup>庸<sup>용</sup>智<sup>지</sup>淺<sup>천</sup>하야 難<sup>난</sup>契<sup>계</sup>於<sup>이</sup>玄<sup>현</sup>言<sup>언</sup>하니  
 至<sup>지</sup>道<sup>도</sup>淵<sup>원</sup>深<sup>심</sup>이라 得<sup>득</sup>之<sup>지</sup>者<sup>자</sup> | 有<sup>유</sup>幾<sup>기</sup>오

<解釋> 본인또한 용렬하고 아는것이 천박하여  
 현묘한말 이해하여 납득하기 어려웁고  
 지극한 침도원리 넓고도 심오한데  
 이런이치 얻은사람 몇명이나 되려는지

偶<sub>우</sub>述<sub>술</sub>斯<sub>사</sub>言<sub>언</sub>하<sub>하</sub>니

不<sub>불</sub>敢<sub>감</sub>示<sub>시</sub>諸<sub>제</sub>明<sub>명</sub>達<sub>달</sub>者<sub>자</sub>焉<sub>언</sub>이나

庶<sub>서</sub>幾<sub>기</sub>乎<sub>호</sub>童<sub>동</sub>夢<sub>몽</sub>之<sub>지</sub>心<sub>심</sub>啓<sub>개</sub>일<sub>일</sub>까<sub>까</sub>하<sub>하</sub>노<sub>노</sub>라

<解釋> 우연하게 이런글을 발표하게 되었으나  
통달하신 명의들께 감히비취 줄순없고  
초학자나 마음열어 깨우치길 바라노라.

### Ⅲ. 考察 및 結論

<標幽賦>는 유명한 鍼灸學家인 竇漢卿이 지은 한 편의 鍼灸學의 名著로 竇漢卿이 著述한 <<針經指南>>에 실려 있다. <標幽賦>는 鍼灸學의 理論과 實踐에서 비교적 내용이 깊고 심오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歌賦의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공부하는 이로 하여금 鍼灸學의 幽微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醫家로 하여금 외우기 쉽게 한 鍼灸歌賦이다.<sup>7)</sup>

<標幽賦>의 내용으로는 經絡, 臟腑, 氣血, 氣候, 取穴, 針法, 論治, 子午流注 등등 鍼灸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일일이 논하였으며, 작자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결합하여 鍼灸學을 공부하는 이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sup>8)</sup>

<標幽賦>에 대한 연구로는 張<sup>9)</sup>의 연구에서 原文에 대한 注釋과 내용에 대한 鍼灸學術의 이론분석이 잘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張의 연구에서 歌賦에 대한 번역을 보면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 歌訣로 된 歌賦를 산문으로 해석해야하는 불편함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歌賦를 詩歌형식으로 번역하여 읽기 쉽고 외우기 쉽게 우리 고유의 운율인 4·4조에 맞춘 번역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歌賦의 原文을 우리 나라 詩歌의 운율에 맞춰 번역을 한 시도는 朴<sup>10)</sup>의 <蘭江賦>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金<sup>11)</sup>의 <百症賦>에 대한 연구에서는 4·4조를 통한 번역작업이 진행되었다.

<標幽賦>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經絡에 관하여 十二經脈의 經氣의 運行 방향을 서술하였

7) 王森 外2人: 鍼灸歌賦集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8) 王森 外2人: 鍼灸歌賦集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9) 張竣赫, 金甲成: 標幽賦에 관한 文獻的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996

10) 朴吳南, 孟雄在: 蘭江賦에 대한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회지, 1992

11) 金信均: 百症賦에 대한 研究, 익산, 원광대학교대학원, 1999

고, 十二經脈의 氣血多少를 설명하였다. 또한 ‘得氣’를 중요시하여 得氣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 설명하였다. 針에 대하여는 九針중 ‘毫針’을 중시하였으며 毫針의 妙用을 五行의 이치를 들어 설명하였다. 奇經八脈과 그 치료범위에 대하여 서술되었고, 取穴法과 補瀉法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임상에 관한 내용으로 照海, 大鍾, 太衝, 公孫, 內關, 支溝, 魂門, 魄戶, 申脈, 金門, 光明, 地五會, 陰郤, 偏歷, 環跳, 天樞穴 등 주요 經穴을 이용한 실제 임상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침 시술시의 手技法, 기후변화와 달의 削望과 上下弦에 따른 침놓을 때의 주의할 점, 禁灸穴과 禁針穴 등에 이르기까지 침구학 이론의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標幽賦>는 鍼灸學의 중요한 내용을 갖추어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鍼灸歌賦로 침구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내용이 극히 요약되어 있어 후학들의 학습과 응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12)</sup> 이는 <標幽賦>뿐만 아니라 歌賦 형태로 된 다른 歌賦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漢字는 難文字에 해당되기에 漢文에 능한 이도 원문을 빨리 읽기가 쉽지 않으며, 초학자는 더욱 빨리 읽기가 어렵다. 또한 歌賦의 내용이 함축적이어서 그 내용을 빨리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저자는 原文을 읽기 쉽게 원문의 음을 달고 어려운 내용에 대한 주석을 달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고유 시가와 민요의 운율인 3·4조, 4·4조의 운율에 맞춘 번역을 통하여 읽기 쉽게 함으로써 반복학습을 통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하여 <標幽賦>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基礎理論, 本草, 方劑, 診斷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歌賦형식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參考文獻

1. 李泰浩: 鍼灸大成, 서울, 杏林出版社, 1967
2. 戴新民: 鍼灸大成校釋, 啓業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 76
3. 王森 外2: 鍼灸歌賦集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4. 高武: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5. 林鍾國: 鍼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6

12) 張竣赫, 金甲成: 標幽賦에 관한 文獻의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회지, 1996

6. 朴炅南, 孟雄在: 蘭江賦에 대한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회지, 1992
7. 楊繼洲: 鍼灸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8. 鍼灸歌賦, 醫藥衛生出版社, 香港, 1973
9. 申天浩: 문답식 鍼灸學, 成輔社, 서울, 1992
10. 金信均: 百症賦에 대한 研究, 익산, 원광대학교대학원, 1999
11. 張竣赫, 金甲成: 標幽賦에 관한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회지, 1996
1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출판사, 1990
13. 노윤혁: 알기쉬운 침구학, 서울, 열린책들, 1991
14. 明順培, 楊順益: 鍼灸學,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87
15.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商務印書館, 香港, 1975
1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2
17.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